

《한국어-미얀마어 사전》(미에 미에 떠: 2008)의 검토

Myint Myint Maw*

1. 서론

한류의 열풍으로 한국어가 세계화되어 감에 따라 미얀마에서도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습자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어 학습자가 자음과 모음을 학습한 후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어휘이다. 어휘 학습을 위하여 참고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서적은 사전이다. 그런데 초보 학습자뿐만 아니라 중급 학습자가 참고하기에도 한국어-한국어 사전은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미얀마인 학습자는 한국어-한국어 사전보다는 풀이 부분이 미얀마어로 된 사전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실용적이다. 즉 대부분 초급 혹은 중급 학습자인 미얀마인 한국어 학습자에게는 한국어-미얀마어 사전이 더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¹⁾

《한-미 사전》이 이중언어 사전의 한 종류로서 학습자에게 도움이 되는 측면은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외국어로 된 글의 이해를 돕는 사전, 특히 한국어를 미얀마어로 번역하기 위해 참고로 사용할 수 있는 사전이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학습자가 외국어를 유창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전이라는 점이다. 즉 전자는 해당 외국어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후자는 해당 외국어의 산출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 수료

1) 본고에서는 이하 《한국어-미얀마어 사전》을 “《한-미 사전》”이라고 칭하고자 함.

이때 전자는 수동적 사전, 후자는 능동적 사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이중 언어 사전이 대역사전이고, 외국어로 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수동적 사전으로 집필된 경우가 많다.

(1) 《한국어-미안마어 사전》(2008)²⁾의 예

가물다: (ga mul da) mo: kaun yae sha: thi ㄱ 날이 이렇게 가물 때엔 식물이 말라 죽기 십상이다. di lo mo: kaun yae sha: pyit la de, a twat a pin twae chout pi: thae bo, mya: de³⁾

(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한-미 사전》(2008)에서는 표제어의 뜻풀이를 제시하면서도 언어의 산출적 능력을 도와 줄 수 있는 발음 정보를 함께 제시하였다. 하지만 여기서 활용형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지 않았다.

위의 (1)은 이중언어 사전이다. 제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할 때, 이것은 한국어 표제어를 번역하는 것이 중심 작업이며 표제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 학습자는 표제어의 의미 이해만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때에 해당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정보를 제시하는 사전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능동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전을 만드는 것은 사전편찬자의 의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어 교육이 세계로 퍼져 나가고 있는 현실에 발맞춰, 본고는 《한-미 사전》(2008)을 중심으로,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제안을 통해 기존의 《한-미 사전》을 더욱 개선시키거나 새로운 《한국어-미안마어 사전》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를 이 논문에서 《한-미 사전》(2008)이라고 함.

3) 한국어 발음 표기는 국립국어원의 로마자 표기법 규정을, 미안마어의 성조 표기는 BGN/PCGN(United States Board of Geographic Name)을 기반으로 적도록 하였음. 미안마어에는 성조가 3개 있는데, 1성조는 오른쪽 아래에 점 하나 “.” 로, 2성조는 다른 표기 없이 그대로, 3성조는 오른쪽에 두 점 “:”으로 표시하고, 후음(glottal stop)의 경우에는 “/k”로 표시하고자 함.

II. 미얀마에서 한국어 교육의 현황

미얀마에서 한국어학과의 처음 개설된 것은 1993년 후반이다. 그 당시 미얀마에서 여러 외국어를 공부할 수 있는 곳은 ‘양곤 외국어 기관(Institute of Foreign Languages-IFL)’밖에 없었다. 이 기관에서도 한국어학과는 다른 학과에 비해 뒤늦게 개설된 학과에 속한다. 처음 개설되었을 때는 중간언어인 영어를 통해 학습하였고, 관련된 참고 서적도 한국어-영어 사전밖에 없었다. 당시에는 디플로마(diploma) 과정만 있었다가, 1996년도에 외국어 기관을 대학으로 승격시키면서 2000년도에서야 한국어학과 학부과정이 개설되었다.

대학으로 승격된 이후, 학부과정뿐만 아니라 인력자원개발센터도 설립되면서 야간 수업 또한 개설되었다. 오전의 디플로마 과정, 주간의 학부과정, 야간의 인력자원개발센터 수업 등, 한국어 학습자 수는 급격히 늘어난 데 비해, 한국어교육 담당자나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 어휘 의미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미얀마어로 된 참고서는 부족한 형편이었다.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 한국어 습득 과정에서 중간언어를 통해 학습하기 때문에, 문법은 물론이고 어휘 사용에 있어서도 많은 오류가 생기곤 했다. 즉 중간언어의 개입으로 어휘가 오용되거나 왜곡된 용법을 습득하는 경우가 많았다.

뿐만 아니라 교육자의 입장에서도 어휘 설명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만 하는 것이 문제였다. 현지인 교육자는 어휘의 의미에만 초점을 두어 설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용법도 어느 정도 설명해야 하는데, 용법 설명을 위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한편 한국과 미얀마 양국 간의 교류는 2002년 중반 이후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많은 텔레비전 드라마나 방송 프로그램이 미얀마로 수입되고 한국 봉제공장들의 미얀마 진출로 경제 교류가 확대되면서, 미얀마로 진출하는 한국인의 수가 증가하였다. 한국 회사의 증가에 따른 취직 희망자의 증가, 아울러 동남아 한류에 힘입은 미얀마인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은 한국어 학습자 수 증가의 원인이 되어 사전의 잠재적인 사용자를 확장시켰다.

당시의 교육 현황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는 한국어 학습자에게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참고서, 즉 《한-미 사전》을 제작·편찬하는 일이었다. 필자는 사전만 있어도 위의 문제들을 어느 정도도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로 미얀마 최초로 《한-미 사전》(2002)을 출판하였다. 그러나 이 사전에 등재된 표제어는 미얀마의 외국어 대학교의 교재 중심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교재 외의 한국어를 학습할 수 없는 단점이 있었다. 그래서 개정판으로 2008년에 표제어와 실용 어휘를 추가하여 지금 본고에서 소개하는 《한국어-미얀마어 사전》(2008)을 출판하게 되었다.

III. 사전의 성격

Sterkenburg(2003: 145)에서는 사전학 이론을 기반으로 할 때 이중언어 사전을 수동적인 사전, 즉 이해 위주의 사전과 능동적인 사전, 표현·산출 위주의 사전으로 나눌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전형적으로 능동적 사전의 사용자는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보다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해당 외국어에서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수동적 사전의 사용자는 해당 외국어의 어휘를 이해하고자 하거나 어떤 글을 해당 외국어로 번역하기 위해 어휘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자, 즉 능동적 사전의 경우는 (1) 정확한 의미와 정확한 문법적·언어적·문체적·화용적 상황에 적합한 표현을 찾는 경우에 쓰이고, (2) 어휘 간의 의미 차이를 파악하여 실제 사용에서 옳은 어휘를 선택하고자 할 때에 쓰인다. 단일언어 사전과 이중언어 사전의 성격을 비교해 보면, 일반적으로 단일언어 사전의 경우 주로 해당 언어 화자, 즉 원어민이 기본적인 어휘의 의미를 찾는 경우보다는 어려운 단어의 의미, 혼동되는 단어, 잘못 사용되고 있는 단어, 백과사전상의 단어, 신조어, 유사어 등을 찾아보기 위하여 사전을 찾는 경우가 많다. 반면 이중언어 사전의 경우, 학습자가 외국어로 된 단일언어 사전을 참고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어휘의 정확한 의미, 용법, 자주

사용하는 형태, 관련된 어휘인 유의어나 반의어, 습관적 표현 등을 찾는 경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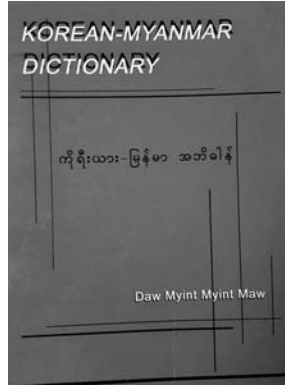
그런 점을 감안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한-미 사전》(2002)을 볼 수 있다. 이 사전은 2002년 10월에 미얀마의 양곤에 있는 네일린(Nay Lin) 출판사에서 출간되었다. 이 사전에 수록된 한국어 표제어는 약 3,000개이고, 부표제어는 약 2,000개로 다른 사전에 비해 작은 사전에 속한다.

실질적으로는 사전 사용자가 한국어-미얀마어 사전을 사용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4가지의 이유로 볼 수 있다. 첫째, 한국어-미얀마어 사전을 통해 학습자가 배우고자 하는 한국어 어휘의 의미를 보다 빠른 시간 내에 얻을 수 있다. 둘째, 학습자가 한국어-한국어 단일언어 사전을 이용하기에는 충분한 능력이 없을 때 이는 큰 도움이 된다. 셋째, 표제어의 의미는 미얀마어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자 자신이 이해한 내용에 보다 확신을 갖게 된다. 넷째, 학습자가 중간 언어, 즉 영어를 통해 학습하면서 소요되는 학습 지연 시간과 중간 언어 실력에 따른 영향 등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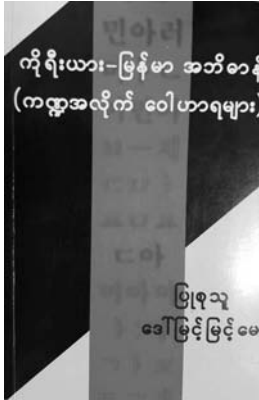
그렇지만 《한-미 사전》(2002)은 위에서 제시한 요건을 온전하게 갖추지 못했다. 이 사전은 기본적인 어휘만을 바탕으로 하며, 사전의 외형과 관련한 편집과 인쇄의 문제도 있고, 사전의 표제어 수 부족, 규모의 문제,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부족 등 내용적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정판으로 2008년 8월 필자에 의해 양곤의 세잇꾸쵸쵸(Seit Ku Cho Cho) 출판사에서 《한-미 사전》(2008)이 출간되었다. 현재로서는 최신인 개정판 《한-미 사전》(2008)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점은 사전의 사용 대상자이며, 이는 미얀마의 외국어대학교 한국어 학습자의 입장을 기반으로 하였다.

《한-미 사전》(2008)은 학습자에게 실질적으로 중요하게 필요한 점에 초점을 맞춰 집필하였다. 즉 동의(同義)의 미얀마어 어휘뿐만 아니라 한국어 어



〈그림 1〉 《한국어-미얀마어 사전》(2002)



〈그림 2〉 《한국어-미안파어 사전》(2008)

휘의 정확한 발음도 함께 제시하였고, 또 각 표제어의 기본 의미뿐만 아니라, 확장 의미, 비유적 의미, 관련된 관용어, 속담 등 실용적인 측면을 반영한 정보들을 함께 제시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문법적인 설명을 보태어, 학습자가 어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의미하는 바를 다른 사람에게 분명히 전달할 수 있게 하였다. 《한-미 사전》(2008)의 각 표제항에는 ‘표제어, 원어 표기,⁴⁾ 미안파어 발음 표시’가 있고, 풀이항에는 ‘미안파어의 뜻풀이’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풀이항에 사용된 어휘가 혼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경우나 개념적 의미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그리고 각 뜻풀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용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부록에는 직업·인간과 관계된 어휘, 질병과 치료에 관련된 어휘, 산업과 관련된 어휘, 경제와 관련된 어휘, 고용과 관련된 어휘, 나라 이름, 친척 관계어 등 분야에 따라 나눠 제시한 명사 3,000개가 포함되어 있다. 최종적으로 최신판인 《한-미 사전》(2008)에 실린 한국어 어휘 수는 각각 표제어 약 10,000개, 부표제어 약 13,000개, 관용표현 약 1,000개, 부록의 명사 3,000개로, 총 26,000개에 달한다. 표제어 하나에 관련된 합성어, 연어 등을 제시하기 때문에 《한-미 사전》(2008)은 어휘의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 사전이라고 볼 수 있다.

《한-미 사전》(2008)의 유형을 사전학의 이론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물리적인 형태로는 종이사전이고, 대부분의 전통적인 사전처럼 글자 사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용의 목적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자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며, 사전에서 제시한 정보의 범위를 보면 표제어를 제한적으로 수록하였으며, 중사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정보의 근거는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제한된 언어 자료에 기반하여 표제어를 선정하고 풀

4) 주로 한자어에 대한 한자 표기와 영어에서 온 외래어의 영어 원어 표기가 된다.

이하는 방식을 취하며 텍스트 구조는 표제어를 한국어의 자모순으로 배열한 외적인 형태를 띤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한-미 사전》(2008)도 언어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남아 있다. 가령 표제어도 일상생활용 어휘만을 다루고 있고, 한국어의 어휘적인 특징으로 볼 수 있는 파생어 중 별다른 표지가 없는 것은 파생에 의해 형성되었는지 알 수 없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다시 살펴보고 개선점을 찾고자 한다.

IV. 사전의 거시구조와 미시구조

1. 사전의 거시구조

Zgusta(1992)에서는 사전 편찬 과정이 자료 수집, 표제어 선정, 사전 항목의 구성, 사전 항목의 배열순으로 진행된다고 하였다. 필자는 “자료 수집” 단계에서는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사전 사용 대상자와 사전의 크기를 중점적으로 고려하였다.

사전 편찬 작업에 제일 어려운 것은 “표제어의 선정”이라고 할 수 있다. 사전의 목적에 따라 사전의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이기도 하고, 다루려는 정보가 많더라도 지면의 제한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Neubauer, Fritz (1987)에서는 표제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사용빈도에 의해 정리된 단어 목록을 활용하는 방법, 언어교육용 기초 어휘 목록을 이용하는 방법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한-미 사전》(2008)은 집필 당시 미얀마의 외국어대학교의 한국어 학습자를 교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하였기 때문에, 표제어 선정을 위해 1차적으로는 당시 외국어대학교 한국어과정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편 교재의 어휘 목록을 참고하였다. 2차적으로는 참고 교재에 등재되지 않았지만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단어를 추가 표제어로 선정하였

다. 흔히 사용하는 단어 중에 중급 수준에 해당하는 어휘를 우선적으로 가려냈다.

표제어 선정을 위해 참고한 사전은 《민중 실용국어사전》(2003)인데, 이는 고유어·한자어·외래어·전문어 등 7만 6천 개가 넘는 표제어가 수록된 사전으로, 풍부한 속담·관용구 또한 함께 수록되어 있는 사전이다. 이 사전에서는 주로 일상생활용 어휘를 중심으로 수록하고 배열하였다.

《한-미 사전》(2008)에 수록된 표제어의 종류를 살펴보면, 명사·대명사·수사·관형사·부사·감탄사·동사·형용사, 문법기능을 하는 조사와 어미, 파생접두사와 이에 의한 파생어, 파생접미사에 의한 파생어, 사자성어 등이 포함되어 있다. 파생접미사에 의한 파생어는 명사의 부표제어로 제시한 것도 있고, 아예 표제어로 선정된 것도 있다. 파생접미사에 의한 파생어가 표제어로 선정되는 경우는 파생접미사가 결합하는 어근이 불완전명사인 경우이다.

“사전 항목의 구성”과 “사전 항목의 배열”은 사전의 거시구조와 관련된 다. 사전의 거시구조란 사전에 등재된 표제어 목록에 포함된 단어들 사이의 관계와 순서를 의미한다. 사전의 거시구조에 따라 사전 표제어의 배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거시구조는 사전학에서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거시구조를 통해 보면, 사전은 표제어를 자모음 순으로 배열하는 일반적인 사전과, 의미 관계에 따라 표제어를 배열하는 의미 분류 사전으로 나눌 수 있다. 자모음 순 배열 사전은 사전 사용자가 찾고자 하는 어휘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만드는 사용자 편의 중심의 사전이라고 볼 수 있고, 의미 분류 사전은 어휘의 체계적인 구조를 반영한 능동적 유형의 사전으로, 기능적인 사전이다.

《한-미 사전》(2008)은 사용자가 찾고자 하는 어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자모음 순으로 배열한 사전이다. 《한-미 사전》(2008)의 표제어 배열 방식은 먼저 자모음 ‘ㄱ·ㄲ, ㄴ, ㄷ·ㄸ, ㄹ, ㄹ, ㅁ, ㅂ·ㅃ, ㅅ·ㅆ, ㅇ, ㅈ·ㅉ, ㅊ, ㅋ, ㆁ, ㅌ, ㅍ, ㅎ’의 순으로 배열하고, 그 후 자·모음이 결합한 음절은 다시 모음 순, 즉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ㅚ, ㅜ, ㅠ, ㅝ, ㅞ, ㅟ, ㅠ, ㅡ, ㅢ, ㅣ, ㅤ, ㅥ, ㅦ, ㅧ, ㅨ, ㅩ, ㅪ, ㅫ, ㅬ, ㅭ, ㅮ, ㅯ, ㅰ, ㅱ, ㅲ, ㅳ, ㅴ, ㅵ, ㅶ, ㅷ, ㅸ, ㅹ, ㅺ, ㅻ, ㅼ, ㅽ, ㅾ, ㅿ, ㅿ, ㅿ’의 순으로 배열하였다.

2 사전의 미시구조

일반적인 사전의 미시구조는 표제부와 설명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표제부에는 표제어, 원어, 발음, 전문 영역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설명부에서는 뜻풀이, 용례와 관련어가 포함되어 있다(조남신 2015: 46).

《한-미 사전》(2008)은 표제어와 관련하여 여러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다. 본고에서는 이를 크게 표제부와 설명부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표제부에는 ‘표제어, 원어, 발음표시, 전문분야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표제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 즉, ‘원어, 발음표시, 전문 분야 정보’를 “표제항”이라 칭하고자 한다. 한편 설명부에는 ‘뜻풀이, 연어, 파생어, 합성어, 관용표현’이 포함되어 있고 이중 표제어와 관련된 ‘연어, 파생어, 합성어’는 “부표제어”라 칭한다. 본고에서는 설명부의 뜻풀이와 부표제어를 합하여, “풀이항”이라고도 부르하고자 한다. “관용표현”에는 ‘속담, 관용어’가 포함되어 있다.

연어는 표제어의 기본 의미를 가지는 어휘의 한 항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부표제어로 설정하였고, 관용어와 속담은 표제어의 기본 의미보다 더 넓은 의미도 지닐 수 있다는 측면에서 관용표현으로 따로 설정하였다.

본고에서는 미시구조적 차원에서 《한-미 사전》(2008)을 표제부와 설명부, 즉 미시구조에 대하여 살펴보고 특히 뜻풀이의 특성과 용례의 기술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한-미 사전》(2008)의 미시구조 구성은 표제어, 표제어의 뜻풀이, 부표제어, 용례, 관용표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명사 표제어의 경우에는 부표제어로 연어, 파생어, 합성어를 제시하였고, 표제항 아래에 이어서 관용표현으로 관용어와 속담도 함께 수록하였다.

《한-미 사전》(2008)의 미시구조는 다음 <도식 1>과 같은 모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

표제어(원어): (발음) (전문 분야 정보) 뜻풀이, 용례. 연어, 용례. 파생어, 용례. 합성어, 용례

관용표현: 뜻풀이 (추가 설명) (미안어에 대응 관용어, 속담, 고사성어 표시)

〈도식 1〉 《한-미 사전》(2008)에서의 미시구조 기술 모형

한국어는 고유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래어도 있기 때문에, 표제어가 고유어인지 외래어인지 학습자가 알 수 있도록 원어 정보를 함께 제시하였다. 다만 이 원어 정보는 모든 표제어의 원어를 찾아 제시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한자어와 영어의 경우로 국한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원어는 표제어 바로 뒤에 소괄호 “ () ”로 표시하여 제시하였다. 아래 예 (2)는 원어가 한자어의 경우이고, (3)은 원어가 영어의 경우이다.

(2) 우체국(郵便局): (u che guk)

(3) 엘리베이터(Elevator)

발음 표시는 미안마어로 제시하였는데, 그 이유는 사전의 대상 사용자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했기 때문이다. 영어에서 유래된 표제어를 제외하고, 그 외의 모든 표제어의 발음은 미안마어로 제시하였다. 발음 표기는 표제어, 원어 다음에 “ () ”로 표시하여 제시하였다.

(4) ㄱ. 구(九) (gu) (ga nan:) kko:

ㄴ. 명사(名詞) (myeong sa) (thada) nan

예 (4)에는 발음 표시 뒤에 전문 분야 정보가 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문 분야 정보는 해당 표제어를 자주 사용하는 전문 분야에 대한 정보로, 발음표시 뒤에 소괄호 “ () ”로 표시해 제시하였다. (4)에서 ‘(ga nan:)’은 “숫자”라는 뜻이고, ‘thada’는 “문법”이라는 뜻이다.

(5) 값: (gab) 뜻풀이. 알맞은 값뜻풀이. 값이 너무 비싸서 살 엄두가 안 난다 뜻풀이. 값어차뜻풀이

값싼 것이 비지떡(속-pon)- 축자적 의미 뜻풀이 (설명)

(6) 입: (ib) (1) 뜻풀이. 입을 벌리다 뜻풀이. 입을 다물다 뜻풀이. 입내 뜻풀이. 입 맛 뜻풀이 (2) 뜻풀이. 용례

입이 가뻐다:(관-i) 축자적 뜻풀이

(7) 원숭이: (won sung-i) 뜻풀이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속-pon) (설명- 축자적 뜻풀이) (미얀마-속담(pon)- ma hma: theo shae. nae ma thae theo sae: tha ma:)

예 (5~7)은 한국어 명사 ‘값’, ‘입’, ‘원숭이’에 대해 기술한 내용이다. 예 (5)는 표제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구 단위의 용례. 표제어의 부표제어인 합성어를 제시하는 방법과 함께 표제어와 관련된 관용표현의 제시 방법도 볼 수 있다. (6)은 표제어의 부표제어인 연어, 합성어의 제시 방법뿐만 아니라, 표제어와 관련된 관용표현의 제시 방식도 보여준다. (7)은 표제어와 관련해 제시된 관용표현이 속담인데, 미얀마어에 대응하는 속담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소괄호로 제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8) 원망(怨望): (won mang) 뜻풀이, 용례. 원망하다 뜻풀이. 원망스럽다 뜻풀이

(9) 깨끗하다: (kkae kkeut ta da) 뜻풀이, 용례.

예 (8)은 표제어 명사의 부표제어로 파생어를 제시한 예로 파생어들은 파생접미사에 의한 파생어임을 보여준다. 예 (9)에서는 접미사에 의한 파생어를 직접 표제어로 제시하는 방법을 볼 수 있다.

(10) 헛-: (heot) 뜻풀이 (발음 설명 추가-“heon”). ㉠헛기침 뜻풀이. ㉡헛말 뜻풀이. ㉢헛일 뜻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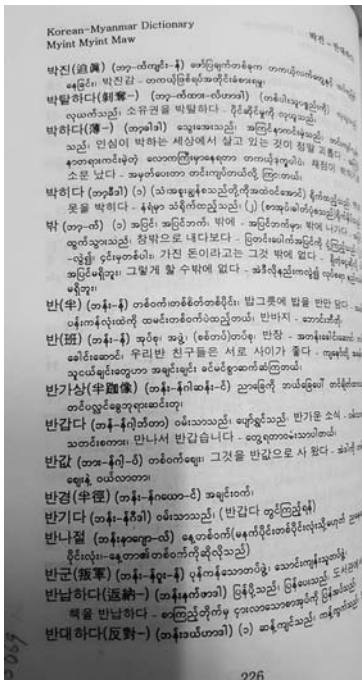
(11) 헛걸음: (heotkkaureum) 뜻풀이 ㉣헛걸음하다 뜻풀이.

예 (10)의 경우, 음운교체가 있는 접두사는 그 의미를 설명한 뒤에 음운 교체에 의한 추가적인 발음 설명을 소괄호 “()” 속에 제시하기도 하고, 표제어 접두사로 형성되는 단어를 부표제어로 제시한 것이다. 예 (11)의 경우

는 접두사에 의한 파생어를 표제어로 제시한 것이다.

- (12) **빨리**: (ppali) 뜻풀이. 용례
- (13) **새**: (sae) (설명-)뜻풀이. 용례. 새집뜻풀이.
- (14) **글썸**: (geul ssae) (설명-) 대응어휘. 용례-뜻풀이
- (15) **백발백중(百發百中)**:(baek ppal baek jung) 뜻풀이. 용례
- (16) **어서**: (e seo) (설명-) 대응 어휘. 용례

예 (12~16)은 각 표제어에 대한 제시 방법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한-미 사전》(2008)에서의 표제어 제시 방법은 위에 보인 <도식 1>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즉 이는 동음이의어 표제어와 관련한 표시, 품사 정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어깨번호나 품사 표시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림 3〉 《한국어-미얀마어 사전》 (2008)의 일부

1) 뜻풀이 기술의 특성

표제어의 의미 기술은 실제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사전 사용자는 한 어휘의 의미에 대해 가능한 한 정확한 의미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하여 사전을 찾는데, 이 의미 기술은 보통 사전 편찬자의 주관적 견해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즉, 사전 편찬자의 주관적 결정에 따라 의미 기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얻지 못할 수 있다.

이중언어 사전의 경우, 사전의 뜻풀이는 기점어 어휘의 개념을 잘 파악하는 것과 동시에 목표어에서 그 개념을 표현할 수 있는 대응 어휘를

정확히 파악·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목표어에 대응 단어가 없거나 대응 단어의 의미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는 추가 설명을 제시해야 학습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중언어 사전에서는 기점어의 각 표제어를 목표어로 뜻풀이할 때 일대일의 상응 어휘가 있는 것이 좋지만, 필요에 따라 둘 이상의 목표어 어휘로 제시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다음 절부터는 《한-미 사전》(2008)에서의 뜻풀이가 이루어지는 방식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한국어의 표제어를 바탕으로 할 때, 단의어(單義語), 다의어(多義語)와 동음이의어(同音異義語)를 나누어 표제어별로 살펴볼 것이다.

(1) 단의어(單義語)의 뜻풀이 기술

《한-미 사전》(2008)에서의 뜻풀이는 표제어 종류에 따라 달리 기술된다. 한국어 명사는 미얀마어에서 명사형의 뜻풀이로, 동사는 동사형의 뜻풀이로, 부사는 부사형의 뜻풀이로 제시한다. 표제어 종류에 따른 뜻풀이 기술의 예는 다음과 같다.

- (17) **나사(螺絲): (na sa)** wat u(=소라의 껍데기처럼 빙빙 비틀리어 고랑이 진 물건. 물건을 고정시키는 데에 쓴다) ¶나사를 죄다-wat u tat thi ¶나사를 빼다 wat u pyote thi ¶십자나사-star wat u ¶숫나사-a twin: a yit ppa theo wat u
- (18) **기술(技術): (gi sul)** [a ttat ppyin nya/ppyin nya yat/sswan yil (=과학 이론을 실제로 적용하여 자연의 사물을 인간 생활에 유용하도록 가공하는 수단.) ¶기술개발-a ttat ppyin nya to: ttat hmu, ¶기술원조-a ttat ppyin nya tout ppan, hmu, ¶첨단(최신)기술- nout son: ppeo a ttat ppyin nya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얀마어에 대응 어휘가 있는 경우에는 대응 어휘 하나로만 제시하고, 표제어의 부표제어로 연어를 제시하고 있다. 소괄호 안에 한국어로 적어둔 뜻풀이는 한국어-한국어 뜻풀이의 예이다. 이 경우 학습자가 표제어 의미와 함께 그 표제어의 실제 언어 사용도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18)의 경우에는 한국어 표제어 하나에 뜻풀이

로 제시할 수 있는 미얀마어 어휘는 3개가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어휘 3개를 나란히 제시하고 있다. 이때 대응 어휘 3개 중 흔히 사용하는 어휘를 먼저 제시하고, 뒤이어 나머지 어휘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구성하고 있다.

- (19) **괄호(括弧): (gwal-ho)** (gwin: za gwin: ppeit ppon san) gwin:(뭉음표) ¶다
 음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입니까- out ppa gwin: twin te. myi. sa ga:
 hma ba le:

(19)는 한국어-한국어 사전에서의 정의가 하나의 어휘로 되어 있지만 미얀마어 뜻풀이의 경우에는 설명을 붙이는 경우이다. 미얀마어에 해당 어휘는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오용을 피하기 위하여 설명 부분을 본 뜻풀이 어휘에 선행하여 제시한 것이다.

- (20) **나: (na) nga**

(20)은 한국어 대명사에 대한 풀이항을 제시하는 방법의 예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20)의 ‘나’를 크게 두 가지로 뜻풀이 하고 있다. 하나는 “말하는 이가 대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아랫사람을 상대하여 자기를 가리키는 일인칭 대명사”이고, 다른 하나는 “남이 아닌 자기 자신”이다. 첫 번째 뜻풀이의 품사는 “대명사”로 되어 있고, 두 번째 뜻풀이의 품사는 “명사”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어에서는 표제어의 뜻풀이가 두 가지로 되어 있지만, 목표어인 미얀마어에서는 “nga”라는 어휘 하나만으로도 두 가지의 뜻을 다 표현할 수 있으므로, 미얀마어의 뜻풀이는 하나의 어휘로만 제시하고 있다.

- (21) **구(九): (gu) (수사-ga nan:)** kko: (=팔에 일을 더한 수. 아라비아 숫자로는 ‘9’, 로마 숫자로는 ‘IX’로 쓴다.)
- (22) **유난히: (yu nan-hi)** tu: kke: swa/ tu: cha: swa (=언행이나 상태가 보통과 아주 다르게, 또는 언행이 두드러지게 남과 달라 예측할 수 없게.)
- (23) **주무시다: (ju mu si da)** eit thi (=자다의 높임말.) (설명-a yin thon: za ga:-
누구한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
- (24) **섬섬하다: (seob seob-ha da)** sseit ma kkaun: pyit thi/wan: ne: thi/ sseit ti,

kait thi (추가 설명 “서운하다/아쉽다”와의 차이) ¶네가 내 부탁을 거절하다
니 정말 섭섭하네- nin nga taun: so da nyin: lo. da ge sseit ma kkaun:
pyit tte

- (25) **헛-** (**heot**) (접두사의 설명-a cho. nan, kri ya shae. twin kat ppyi: yin:
nan, kri ya to. a chi: hni: pyit thi hu theo so lo chat)(=일부 명사 앞에
붙어) ‘이유 없는’, ‘보람 없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일부 동사 앞에 붙어)
‘보람 없이’, ‘잘못’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발음 설명 추가-“heon“). ¶헛기
침-chaun: a tu. ¶헛말-a la ka: sa ka: ¶헛일- a chi: hni: keit ssa
- (26) **헛걸음**: (**heotkkaureum**) a chi: hni: pyit theo chae hlan: mya:(=목적을 이루
지 못하고 헛수고만 하고 가거나 음. 또는 그런 걸음.)¶ 헛걸음하다- a chi:
hni: pyit theo chae hlan: hlan: mi. te
- (27) **일편단심**(一片丹心): (**il pyeon dan sim**) tta tha mat te: shi. theo sseit yin:
(=진심에서 우리나라오는 변치 아니하는 마음을 이르는 말)

예 (21~27)은 《한-미 사전》(2008)에서 표제어로 등재되는 각 어휘 종류의
뜻풀이 제시 방법을 보여 주는 것이다. 각 예에서 뜻풀이 방법은 <도식 1>
에서 제시한 것과 동일하지만, 주목할 만한 것은 추가된 설명들이다. (21),
(22)와 같은 수사, 부사의 경우에는 추가 설명이 없지만, (23~27)에는 추가
설명에 필요한 것을 볼 수 있다. 예 (23)은 동사 표제어이고 미얀마어 뜻풀
이를 어휘 하나만으로 제시할 수 있지만, 표제어의 특징인 높임말과 관련한
정보 등은 추가 설명으로 설명하고 있다. 예 (24)는 형용사 표제어이다. 이
때 형용사 ‘섭섭하다’의 뜻풀이는 감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다른
형용사와의 차이를 추가 설명을 붙여 제시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예 (25)는
접두사 표제어이고, 이에 대한 미얀마어의 뜻풀이는 하나의 어휘가 아닌 설
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결론적으로 《한-미 사전》(2008)에서의 단의어 표제어는 <도식 1>대로 풀
이항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뜻풀이에 있어서 미얀마
어에 대응 어휘가 일대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제시하지만(17), 둘
이상의 미얀마어 어휘로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모두 제시하고 있
다(18). 한편 미얀마어에 해당 어휘가 있지만 그 어휘가 다의어인 경우 등
에는 학습자의 오용을 피하기 위하여 추가 설명을 붙이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19). 이 외에도 추가 설명을 붙이게 되는 경우로, 미안마어에는 없고 한국어에만 있는 높임말 표제어, 접두사 표제어, 개념을 나타내는 표제어와 사자성어(27) 등을 들 수 있다.

(2) 다의어(多義語)의 뜻풀이 기술

이중언어 사전에서 기점어의 표제어가 여러 의미를 지닐 때, 뜻풀이의 배열과 순서는 기점어에 의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다의어의 뜻풀이는 기본 의미를 먼저 제시하고 확장 의미를 이어서 배열하는 방식을 취한다. 《한-미 사전》(2008)에서도 선정된 표제어가 여러 개의 의미를 지닐 때에는 기본 의미를 먼저 제시하고 확장 의미는 이어서 배열하는 방식을 취한다.

(28) **기자(記者): (gi ja)** [ja nae tha ma:/tha din: tout/tha din: za sa ya] (=① 신문, 잡지, 방송 따위에 실을 기사를 취재하여 쓰거나 편집하는 사람/② 문서의 초안을 잡는 사람) ¶기자단- tha din: tout a pwe, ¶수습기자- tha din: tout pyit ssa, lu) ¶중군기자-ssit tha din: tout

(29) **역사(歷史): (yeok ssa)** (1) [tha mai:/hmat tan:] (=① 인류 사회의 변천과 흥망의 과정. 또는 그 기록. ② 자연 현상이 변하여 온 지취. ③ 역사학.) ¶역사적 사건- tha mai: win pyit yat ¶역사책에 기록되다- tha mai: twin hmat tan: tin thi (2) (shae: haun:) a ssin a la (=어떠한 사물이나 사실이 존재해 온 연혁.) ¶역사가 있는 학교- a ssin a la shi, theo kkyau:n

예 (28~29)는 한국어 명사 “기자”와 “역사”의 풀이항에 대한 예이다. 이 두 표제어는 모두 한국어 뜻풀이에서는 둘 이상의 정의가 있지만, 미안마어 어휘는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것(예-28)을 볼 수 있다. 예(29)에서 미안마어 어휘 3개가 대응 어휘로 제시한 이유는 이들은 유의어이기 때문이다. 이 중 어느 어휘를 먼저 제시하느냐에 대한 선택은 그 사용 빈도에 의해 이루어진다. 즉 흔히 사용하는 어휘를 먼저 제시한다.

(30) **짓다: (jit-ta)** (1) ppyu, lote thi (=① 재료를 들여 옷을 만든다./② 뭉거나 꺾거나 하여 매듭을 만든다.)/¶옷을 짓다-in: ji chote thi (2) sout lote thi (=

재료를 들여 집을 만든다.) ¶벽돌로 지은 집- ote pyin, sout theo ein (3) (sa) sat thi(=시, 소설, 편지, 노래 가사 따위와 같은 글을 쓰다.) ¶시를 짓다 - ga bya sat thi (4) chat ppyote thi/ sae: peo ssat thi(=① 여러 가지 재료를 섞어 약을 만든다./② 재료를 들여 밥을 만든다.) ¶ 밥을 짓다 ta min: chat thi (5) ssite ppyo: thi(=논밭을 다루어 농사를 하다.) ¶농사를 짓다-san ssite thi (6) kkyu: lun thi(=죄를 저지르다.) ¶죄를 짓다 a ppyit kkyu: lun thi (7) (myat hna a mu a ya) lote thi(=어떤 표정이나 태도 따위를 얼굴이나 몸에 나타내다.) ¶미소를 짓다-ppyon: ppya, thi (8) (a lote) a ppyi: that thi(=이어져 온 일이나 말 따위의 결말이나 결정을 내다.) ¶일의 결말을 짓다 - a lote lat ssa, that thi

예 (30)은 표제어 “짓다”의 풀이항에 해당하는 예이다. 주목해야 하는 것 중 하나는 한국어-한국어 사전에서 “짓다”의 뜻풀이로 “재료를 들여 밥, 옷, 집 따위를 만든다.”라고 풀이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어에서는 “밥, 옷, 집” 등을 만들 때는 “짓다”라는 어휘 하나만으로도 모두 표현할 수 있지만, 미얀마어에서는 “밥을 짓다”의 경우는 ‘chat thi’, “옷”의 경우는 “chote thi”, “집”의 경우는 “sout thi” 등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이 경우 3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제시한 것을 볼 수 있다.

- (31) **새: (sae)** (미얀마어 설명-) (nan) a thit (=① 이미 있던 것이 아니라 처음 마련하거나 다시 생겨난./② 사용하거나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한.) ¶새옷- in: gyi a thit ¶새집- ein thit
- (32) **글쎄: (geul sse)** (미얀마어 설명-) in: / e: da ppeo. (=① 남의 물음이나 요구에 대하여 분명하지 않은 태도를 나타낼 때 쓰는 말. 해할 자리에 쓴다./② 자신의 뜻을 다시 강조하거나 고집할 때 쓰는 말) ¶ 글쎄, 그 사람이 결혼했 다니까 in:, thu lat tat thwa: ppyi so hma.
- (33) **에서: (e seo)** (전문분야-tha da) (1) hnai./ hma/ ttwin(=① 앞말이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최초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② 앞말이 비교의 기준이 되는 점의 뜻을 갖는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ssa: thout sai hma nae. le sa ssa: dae (2) hma(=① 앞말이 출발점의 뜻을 갖는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② 앞말이 어떤 일의 출처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이 우산은 백화점에서 샀다 di ti: go kon dai, hma, we thi

예 (31~33)은 한국어 뜻풀이가 두 가지로 나타나지만 미안마어 뜻풀이로는 대응 어휘 하나로만 제시할 수 있는 경우이다. 이들은 하나의 어휘로 이루어진 미안마어 뜻풀이뿐만 아니라 추가 설명을 필요로 하는 관형사와 감탄사의 예이다. (31)의 관형사에 대한 추가 설명은 ‘일부 명사 앞에 붙어서 그 명사가 “새 것”이라는 뜻’이라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 학습자에게 관형사와 관련된 단어 형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32)의 감탄사의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다.

이중언어 사전의 다의어 뜻풀이에는 기점어에서 둘 이상의 뜻풀이가 목표어에서는 하나의 어휘로 제시할 수 있는 경우(28, 29, 31, 33), 한국어 뜻풀이에서는 하나인 뜻풀이가 미안마어에서는 둘 이상의 어휘로 풀이해야 하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30) 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미 사전》(2008)의 다의어 뜻풀이는 <도식 2>의 모형과 같이 된다.

표제어(한자) /발음/ (1) (설명) 기본 의미, 용례, 연어, 합성어 (2) (설명) 흔히 사용하는 의미1, 용례, 연어, 합성어 (3) (설명) 흔히 사용하는 의미2, 용례……

<도식 2> 다의어의 뜻풀이 기술 모형

(3) 동음이의어(同音異義語)의 뜻풀이 기술

하나의 어휘소가 여러 의미가 관련이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질 때에는 다의어로 인정하여 같은 사전항목에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형태지만 전혀 관련이 없는 여러 의미를 가지는 어휘들에 대해서는, 동형어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 경우 사전에서는 표제어를 따로 제시해야 한다. 《한-미 사전》(2008)에서는 고유어의 동음이의어와 한자어의 동음이의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34) 이: (이) thwa:(=척추동물의 입 안에 있으며 무엇을 물거나 음식을 씹는 역할

- 을 히는 기관) ¶이가 아파서 밥을 못 먹어요- thwa: na lo, ta min: ma ssa: nai bu: ¶ 이가 빠지다- thwa: kkyo: thi ¶이를 뽑다- thwa: hnote thi
- (35) **이: (i)** than:(=이목의 곤충을 통틀어 이르는 말. 몸의 길이는 1~4mm이고 편평한 방추형이다. 날개는 없고 머리 양쪽에 홑눈이 한 개씩 있다. 사람의 몸에 기생하면서 피를 빨아 먹는다. 잇과, 짐승닛과, 털닛과 따위가 있다.) ¶이를 잡다- than: sha thi/than: tai, thi
- (36) **유해(有害): (yu hae)** bae: u, bat pyit chin:(=해로움이 있음) ¶유해물질- bae: u, bat pyit sae theo a ya ¶유해성- bae: u, bat pyit sae theo thatti.
- (37) **유해(遺骸): (yu hae)** a yo: su./a yo: ppya (=유골) ¶유해를 안치했다- a yo: ppya go ta ppa na thi
- (38) **타다: (ta da)** (1) laun kkywan: thi (뜨거운 열을 받아 검은색으로 변할 정도로 지나치게 익다) (2) (ne)laun thi (피부가 햇볕을 오래 쬐어 검은색으로 변하다) ……(생략)
- (39) **타다: (ta da)** (1) (kka:/ya ta:/ myin: etc)ssi: thi (=탈것이나 짐승의 등 따위에 몸을 엮다) (2) (taun/thit pin etc)tat thi (=도로, 줄, 산, 나무, 바위 따위를 밟고 오르거나 그것을 따라 지나가다) (3) (a kwın, a yae: etc) ya, ya sote kkai thi (=어떤 조건이나 시간, 기회 등을 이용하다) …(생략).
- (40) **타다: (ta da)** (a yay tta khu khu twin) pyaw thi/yaw ssat thi (=다량의 액체에 소량의 액체나 가루 따위를 넣어 섞다)
- (41) **타다: (ta da)** (su, kkyay:/la, ka, etc) ya, thi (=뭍이나 상으로 주는 돈이나 물건을 받다)

예 (34~37)은 고유어와 한자어 명사의 동음이의어에 대한 뜻풀이 기술을 제시한 것이고, 예 (38~41)은 고유어 동사의 뜻풀이 기술을 제시하는 것이다.

2) 용례의 기술

외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는 자신이 궁금해 하는 어휘를 이해하는 데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 언어 사용 상황에서 어휘를 활용하기 위하여 사전을 참고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표제어의 용례는 학습자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용례는 어휘의 의미 이해뿐만 아니라 실제 용법과 표현도 보여 줄 수 있고, 비슷한 어휘 사용의 차이를 파악하는 데 유용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정연숙(2009: 93)에서는 뜻풀이와 용례가 함께 주어지는 것은 학습자의 학습 효율을 높일 수 있고, ‘용례’와 뜻풀이 이외에 다른 항목과의 관련성을 고려하는 것 역시 학습자의 단어 이해와 표현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미 사전》(2008)에서도 다음과 같은 방법을 취해 용례를 제시하고 있다.

- (42) **꿀: (kkul) ppya: yae** ¶ ppya: yae lo cho myein theo a chit- 꿀 같이 달콤한 사랑
- (43) **엷매이다: (eol mae i da)** (1) lain ppat shat nwe thi. ¶엷매인 줄을 풀기가 어렵다 lain ppat nae de. kkyo: go pyae ya, da kat te (2) (a ppyu, a mu/a twae: ssa thi) nyi, twe hnaun pwe, thi. ¶누구나 자기 나라의 관습에 엷매이는 것이 당연하다-bae thu ma so ko, nai ngan da lae, ssa yeik hma nyi, twe nae da tha ba wa, be’-

예 (42)는 단어어의 예로, 표제어의 뜻풀이에 도움이 되는 용례를 구 단위로 제시하고 있다. 예 (43)은 다의어의 예로, 각 뜻풀이에서 의미 해독을 위하여 문장 단위의 용례를 제시한 것이다.

V. 사전 편찬 당시의 문제점들

《한-미 사전》(2008)의 편찬은 한국어에서 미얀마어로 번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지만, 사전편찬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일반적으로 사전을 참고하는 이유는, 사용자가 어휘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고 싶어 하는 것이 1차적인 것이고, 표제어와 관련된 정보를 이어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2차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한-미 사전》(2008)은 사전이용자의 요구에 완전히 부합한다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개념적 어휘의 의미 설명이 때로는 학습자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Sidney I. Landau(2001: 131)에서는 “진단”이라는 단어에 대하여 “내과의는

환자의 병력을 고려하고 환자가 진술하는 증상을 평가하여 객관적 소견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체 검사를 시행한 후에 진단을 내린다”라고 정의했는데, 이것은 내과 의사 하는 일의 과정을 말해 주고는 있으나 진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즉 단어의 본질적 의미를 말하고 있지는 않다. 《한-미 사전》(2008)에서도 이러한 혼동을 피할 수 있도록 추가 설명을 달았지만, 긴 설명이나 많은 설명이 오히려 학습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

1. 표제어 선택의 문제

《한-미 사전》(2008)의 주목적은 외국어대학교의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참고서로서의 쓰임이기 때문에, 그 표제어가 교재 기반 어휘와 일상생활용 어휘로만 제한되어 있다. 일반적인 방식대로라면 말뭉치 기반으로 표제어를 선택해야 하지만, 미안마 현지에서 말뭉치를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부재 등의 문제가 있어 교재를 기반으로 표제어를 선정하게 되었다.

2. 발음 표시의 문제

발음 표기는 국제음성기호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대부분의 사전 사용자는 국제음성기호를 알아보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학습자의 편의상 미안마어 표기 방식을 사용했지만, 한국어 음소, 특히 모음 중 “-”는 미안마어에 없는 음소이므로 이를 표기하기 위한 방안을 필요로 한다. 이는 한국어 화자들도 대부분 “-”에 가깝게 발음하기는 하지만, 음성과 맞춤법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미안마어의 음성적 표기 방식을 바탕으로 표기한 바 있다.

3. 어휘의 문제

어휘와 관련한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한국

어에 있는 부정 함축 동사는 미안마어에 대응 어휘가 없어서 동사구로 풀어 써야 한다는 점이다. 미안마어에서는 부정의 경우 [부정접사-ma+ 동사 어근 + bu:(구어체)/ppa(문어체)]와 같은 형식으로 표현한다. 따라서 부정 의미를 함축하는 표제어 중 동사는 이런 방식을 취할 수 있지만, 부정접두사에 의한 파생명사의 경우에는 이를 절로 제시하거나 사전의 표제어로 선정하지 않았다.

둘째는 《한-미 사전》(2008)에서 표제어의 부표제어를 표제어에 떨어져 제시하였는데, 이 부표제어 중 합성어의 사이시옷 첨가 현상에 대한 문제이다. 가령 표제어 “담배”의 합성어인 “담뱃대”의 경우, 표제어와 관련이 있는 단어이지만 형태적으로 보면 사이시옷의 첨가로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표제어의 부표제어로 제시할 수 없게 되었다. 사이시옷이 첨가된 합성어는 별도의 표제어로 선정하였다.

4. 범주적 문제

한국어의 형용사는 서술형이 기본이지만, 미안마어의 형용사라는 개념은 수식형(관형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문제가 생긴다. 하나는 품사를 제시할 때 단순히 형용사라고만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뜻풀이에서 미안마식 형용사의 형태를 취할 수 없고 한국어의 학교문법 형식을 따르게 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품사를 표시하는 데 있어서 한국어 사전에서 품사 통용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찾지 못한 경우가 있어, 품사의 표시에 어려움이 겪기도 했다(예문 (20) 참조). 그리고 활용에 있어서 “있다/없다”는 기존의 사전에서 형용사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 교재에서는 “...있는데/없는데”로 나타나기 때문에, 수식어나 연결어미와 결합할 때의 형태와 관련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5. 대우법의 문제

한국어에만 있고 미얀마어에 없는 개념 중의 하나는 대우법이다. 《한-미 사전》(2008)에서는 높임말 표제어의 경우에는 추가 설명을 꼭 달아야 학습자의 실용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설명이 길어질 경우 학습자에게 오히려 혼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이를 미처 해결하지 못했다.

6. 뜻풀이의 문제

한국어의 피·사동 표제어의 뜻풀이는 애매한 점이 많았다. 미얀마어에는 피·사동이 있기는 하지만 음운 교체형이 몇 개밖에 없어서 피·사동의 뜻풀이에는 설명의 추가를 하거나 긴 문장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또한 학습자에게는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한다는 단점이 있다.

표제어의 의미 영역에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흔히 사용하는 어휘지만 어느 정도의 문화적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서는 깊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가령 “놀다”는 《한-미 사전》(2008)에 일반적 의미로 제시했지만, 거기에 조롱하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는지가 확실하지 않아서 제외하였다.

VI. 향후 개선점 및 발전 방향

1. 표제어의 선정

향후 《한-미 사전》을 편찬할 때에는, 표제어 선정은 교재 기반으로 하는 것보다 사용 빈도를 기반으로 하거나 어휘 중요도를 기반으로 선정하는 방법을 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파생접미사에 대한 표제어 선정, 어미·조사 의 표제어 선정 원칙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2. 표제항의 개선

- ㄱ. 동음이의어의 경우 어깨번호 표시가 꼭 필요하다.
- ㄴ. 한국어의 품사 제시가 필요하다. 아무리 목표어의 품사 분류와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기점어에는 품사에 따라 활용법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즉 한국어의 동사와 형용사의 활용형은 다르기 때문이다. 가령 관형형의 활용은 동사와 형용사는 다른 형태를 취한다.
- ㄷ. 표제어에 대한 활용정보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 ㄹ. 파생어 제시는 학습자에게 파생어라는 정보를 주지 않는다. 향후 파생어의 표시를 할 필요가 있다. 가령 “헛일”이라는 표제어에는 “헛-일”의 형태로 제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 ㅁ. 참고어로 표제어의 유의어와 반의어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VII. 결론

본고에서는 2008년도에 필자가 출판한 《한국어-미얀마어 사전》에 대하여 표제어 선정에서부터 풀이항을 제시하는 데 이르기까지의 구성을 살펴보았다. 표제어, 부표제어, 관용표현으로 총 26,000개의 어휘를 수록한 사전으로 일상생활용으로는 쓸 만한 자료로 볼 수 있지만, 학습자의 수준이 더 높아진다면, 그에 맞는 사전이 새로 필요할 것은 분명하다. 한류의 열풍과 더불어 한국과 미얀마 양국 간의 교류가 많아짐에 따라 의사소통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참고서는 사전이라고 할 수 있다. 미얀마에 한국어학과가 개설된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제대로 된 한국어-미얀마어 사전이 하나도 없으며, 학습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한-미 사전》(2008)이 출판되기는 했지만 고급 학습자가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 《한-미 사전》(2008)을 살펴보았다.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제대로 된 사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양쪽 언어 간의 대조

언어학적인 연구가 숙제로 남아 있다. 본고가 앞으로 기존 사전의 개선이나 새로운 사전의 편찬에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리라 믿는다.

참고문헌

- 고영근·구본관(2009),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 국립국어연구원(2000),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I》, 국립국어연구원.
- 국립국어연구원(2000),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II》, 국립국어연구원.
- 김미현(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사전에서의 연어 연구〉, 《한국사전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집》, 한국사전학회.
- 김정남(2003), 〈학습자용 활용형 사전을 위한 제안〉, 《한국사전학》 2, 한국사전학회.
- 박꽃새미(2008),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사전 사용이 쓰기에 미치는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배주채(2014), 《한국어의 어휘와 사전》, 태학사.
- 유현경·남길임(2008), 《한국어 사전 편찬학 개론, 사전 편찬의 이론과 실제》, 역락.
- 신지영·원미진(2010),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다국어 사전의 대역 기술 방법 연구〉, 《언어학》 58, 언어학회.
- 이사룡(2005), 〈한국어 이중언어사전 편찬을 위한 템플릿(Template)제작에 대한 제안〉, 《한국사전학》 6, 한국사전학회.
- 이유경(2012), 〈외국인학습자 개별학습을 위한 한국어 어휘의미망 사전개발 방안〉, 《이중언어학》 49, 이중언어학회.
- 장미원(2002), 〈베트남어 이중언어 사전의 과제〉, 《베트남어연구》 3.
- 정연숙(2009), 《한국어학습사전의 내용구조》, 역락.
- 정영주(2012), 〈우크라이나어-한국어 사전의 편찬 원칙과 특징〉, 《한국사전학》 19, 한국사전학회.
- 정영주(2012), 〈러시아의 학습사전 연구의 특징〉, 《이중언어학》 50, 이중언어학회.
- 조남신(2015), 《사전학》, 한국문화사.
- 홍종선 외(2009), 《국어사전학 개론》, 제이앤 씨, Publishing Company.
- Atkins, B.T. Sue, Michael Rundell(2008), *The Oxford Guide to Practical Lexicography*, Oxford University Press.
- Landau, Sidney I.(2001), *Dictionaries: The Art and Craft of Lexicography*,

Cambridge University Press.

Myanmar Language Commission(2005), *Myanmar Grammar*, Universities Press,
30th. Anniversary of Myanmar Language Commission,
Sterkenburg, Piet van(2003), *A Practical Guide to Lexicography*,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Philadelphia.

사전류

민중서림편집국(2003), 《민중 실용국어사전》, 민중서림.

Myanmar Language Commission(2008), *Myanmar Dictionary*, Second Edition,
Nay Lin Press.

Myanmar Language Commission(2011), *Myanmar-English Dictionary*, Universities
Press.

Myint Myint Maw(2008), *Dictionary of Korean- Myanmar(Classified words)*,
Seit Ku Cho Cho Press.